

단국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 퇴실할 경우 결시 처리됨)
2. 문제 번호와 답안 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 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 처리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을 금지함)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니 원고지 교정 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여백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런데 동양화는 화면을 꼭 채우지 않고 여백을 둔다. 오른쪽 그림에서 여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목해 보자. 여인은 봄이 되어 나물을 캐러 나왔다. 여인은 어딘가를 보고 있는데 그곳에는 공간 표현을 위한 배경 산수가 보이지 않는다. 시선이 머무는 곳이 여백으로 처리되어 있다. 여인이 바라보는 것은 나물일까? 아니면 봄맞이 나온 나비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만약 여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물을 그렸다면, 우리는 여인이 캐고자 하는 나물을 보고 있는 것으로 단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여백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인이 보고 있는 것이 꽃, 나비, 돌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이 그림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화가는 왜 여인의 뒷모습을 그렸을까? 왜 여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가렸을까? 강하게 부각된 호미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일하기에 편리하도록 소매와 바짓단을 걸어붙인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굵은 장판지와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맨 수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화가가 여성성의 의미를 최소화하고, 성별을 넘어선 ‘건강한 노동’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그림을 보는 사람은 여백에 없는 대상들을 그려 넣을 수도 있고, 이미 드러난 여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 그림의 의미를 나름대로 짐작할 수도 있다.



출처 : 이상형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출제진 재구성)

[나] 진주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초가집 동그란 창 안을 들여다보고 황량한 겨울 땅을 자박자박 걸어 보기도 했다. 가만히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다 어느새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렸다. 마른 붓으로 그린 선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마음에 새기듯이 그렸다.

“「세한도」가 정말 좋은가 보구나.”

윤기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진주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림을 그린 곳에 꼭 가 보고 싶어요. 여기가 제주도 유배지죠?”

“사실 유배지를 그린 것은 아니야.”

“그럼 어디를 그린 거예요?”

“추사가 상상한 풍경을 그렸겠지. 네가 가압장* 풍경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그린 것처럼.”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참 대단해요. 나무 네 그루에 초가집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들까요?”

“진주는 예술을 마음으로 느낄 줄 아나 보구나.”

윤기의 칭찬에 진주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이 그림이 워낙 대단한 거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지.”

“사실 「세한도」에 대단한 점이 또 있는데……, 이 그림에는 수학이 숨겨져 있어.”

윤기가 꺼낸 수학이라는 말에 진주가 질겁하며 말했다.
 “누가 수학 선생님 아니랄까 봐 감동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들어 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들어는 볼게요.”
 “잘 들어 봐. 「세한도」는 치밀하게 수학적 구도를 계산한 작품이야. 먼저 그림과 글의 위치를 맞추었지.”
 윤기가 액자 옆으로 가 손을 뻗어 가리키며 말했다.
 “발문의 위쪽은 그림 제목 옆의 낙관과 같게 하고, 아래쪽은 그림의 지면 높이와 맞추었어. 그리고 아래 인장들도 동일 선상에 오도록 맞춰 찍었지.”
 “그러니까 글의 위치를 그림과 낙관에 맞추었다는 거죠?”
 “그렇지.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발문 오른쪽의 낙관에서부터 끝까지의 가로는 70센티미터, 그리고 발문의 가로는 35센티미터야.”
 “아, 그럼 글과 그림의 비율이 1대 2가 되네요.”
 “맞아, 그리고 여기를 봐. 맨 왼쪽 잣나무의 위치. 이 잣나무는 그림과 글을 합친 전체 가로 길이인 108.3센티미터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위치에 있어.”
 윤기가 손바닥을 세워 그림에 갖다 대자, 진주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와, 그렇구나. 여태 전혀 몰랐어요.”
 “다시 그림 부분만 볼까? 그림 가운데에 곧게 선 소나무 있지? 이 소나무는 정확하게 그림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중략)……

“어때, 「세한도」의 아름다움이 수학적 구도에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러네요. 추사는 수학을 잘했나 봐요.”

* 가압장 : 수도 시설의 일부로, 수압을 높여서 고지대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시설

출처 : 안소정, 『세한도의 수수께끼』

[다] 토머스 그래드그라인드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인간. 사실과 계산의 인간. 둘 더하기 둘은 넷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며, 넷 이외의 다른 숫자를 생각하도록 설득될 수 없는 인간. 토머스 그래드그라인드입니다. 여러분—누가 뭐라 하건, 토머스—토머스 그래드그라인드입니다. 자와 저울, 구구표를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인간성의 어떤 쪼가리라도 무게를 달고 치수를 재고,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건 그저 숫자의 문제이고 간단한 산술의 문제입니다. 조지 그래드그라인드나 오거스터스 그래드그라인드, 존 그래드그라인드나 조지프 그래드그라인드라면(모두 다 가상적이고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죠.) 다른 어떤 말도 안되는 생각을 주입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토머스 그래드그라인드에게는—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드그라인드 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든 일반 대중을 만나든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자신을 내세웠다. ‘여러분’ 대신에 ‘학생들’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토머스 그래드그라인드는 자기 앞에 있는, 사실로 한가득 채워지게 될 작은 주전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토머스 그래드그라인드임을 과시한 것이다.
 실제로 그가 앞서 말한 지하 저장고 같은 눈으로 그들을 노려볼 때면, 그는 포구(砲口)까지 사실로 장전되어 그들의 유년기를 단번에 날려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일종의 대포 같았다.

……(중략)……

“그래, 좋다. 네 아버지는 의사, 즉 말을 치료하는 사람이자 조마사이다. 말에 대해 정의해보거라.”

(이 요구를 받고 완전히 혼비백산하는 씨씨 주프.)

“20번 여학생은 말을 정의할 줄 모르는군!” 그레드그라인드 씨는 모든 작은 주전자들을 위해 말했다. “20번 여학생은 가장 흔한 동물에 대해서조차 알고 있는 사실이 전무해! 말에 대해 정의해볼 남학생. 비찌, 네가 한번 해보거라.”

……(중략)……

“네발짐승. 초식동물. 이빨은 마흔 개로 어금니 스물네 개, 송곳니 네 개, 그리고 앞니 열두 개. 봄철에 털갈이를 하고 습지에서는 발굽갈이도 함. 발굽은 단단하지만 편자를 대어붙여야 함. 나이는 입 안쪽의 표시로 알 수 있음.” 비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많이 보태서) 말을 정의했다.

“자, 20번 여학생,” 그레드그라인드 씨가 말했다. “이제 말이 어떤 동물인지 알았지.”

출처 : 찰스 디킨스, 『어려운 시절』

[문제 2] [가]를 활용하여 [다]와 [라]의 주장을 비교하고, [나]의 입장에서 [다]와 [라]의 주장을 평가하십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시장 경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사회 구성원이 협력하여 나타난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경제가 번영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사회 정의의 가치가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 구성원은 정의를 사회에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윤리적 가치로 생각하며, 정의를 우선시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교육 기회, 취업·승진, 학벌,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 면에서 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개인과 국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먼저, 공동체의 몫을 개인의 몫으로 취하지 않는 사회 윤리가 형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택과 토지의 독과점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의한 행위이다. 주택과 토지를 소수가 독과점하면 계층 간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재능, 부, 지위 등을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 구성원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부 운동은 개인이 사회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국가는 사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 정의의 실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언제나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제도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이 교육, 취업·승진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학벌에 근거한 차별을 해소하고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정치, 경제 영역에서의 권력이 다른 영역의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 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사회 제도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출처 : 박병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正義)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중략).....

내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도덕적인 행위는 이타적(unselfish)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외적인 관찰자는 이기주의에서 선을 찾을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인간 본성의 구조에 대해 이기주의가 보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회에 대해서도 이기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행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이타성이 도덕의 최고 기준이어야 함에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행위의 주체만이, 자신이 사회적으로 승인 받은 행위가 이기심에 의해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중략).....

도덕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들의 관계로 옮겨가면 갈수록 이기적 충동은 사회적 충동을 누르고 득세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강한 내면적 억제도 이기적 충동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 라인홀드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다] 서방 국가들이 지난 2세기 동안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자유 기업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절대적 의미의 빈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빈곤이란 상대적인 문제이며, 사실 서방 국가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빈곤하다고 여겨지는 여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수단이자 여러모로 가장 바람직한 수단은 바로 사적인 자선 행위이다. 자유방임주의의 전성기였던 19세기 중·후반의 영국과 미국에서 민간 자선 기구와 단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복지 활동이 늘어남과 동시에 민간의 자선 활동은 쇠퇴해왔으니, 후자야말로 전자로 말미암아 사회가 치르게 된 주요한 대가 중 하나다.

.....(중략).....

첫째, 빈곤의 완화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방향을 맞춰 복지 활동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하필 농부라면, 농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복지 활동은 사람들을 그저 사람들로 보고 돕는 것이어야지, 그 사람들이 특정한 직업 집단, 연령 집단, 노동 조직이나 업계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농업 프로그램, 일반 노령연금,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우대 입법 등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결함이다.

둘째, 시장을 통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복지 활동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격 지지, 최저임금법 등이 갖는 결함이다.

출처 :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출제진 재구성)

[라] 공공선을 배정하고 그 자금을 조달하는 일은 국가가 맡아야 하며 납부를 요구하는 규제 원칙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록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몫을 지불하려는 의지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 타인들도 그들의 본분을 다하리라는 확신이 설 경우에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타인들의 행위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고립된 개인들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행위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해도, 그 합의가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의감으로 인해 우리는 정의로운 체제를 발전시키게 되고 타인들이나 혹은 그들 대다수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리라고 믿을 경우, 정의의 체제 내에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속력 있는 규칙이 시행될 때만 이에 대한 합당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선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모두가 그것을 배정하는 데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강제와 사용은 각자의 관점에서 보아 완전히 합리적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한 이런 식으로 해명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의감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에 의해 법규가 시행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주요 공공선이 갖는 독특한 특성은 집단적 합의를 필요로 하며, 그 합의가 준수되리라는 강한 확신은 모두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출처 : 존 롤스, 『정의론』

[문제 3] [가]와 관련하여 [다]와 [라]를 설명하고, [나]를 참고하여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십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드라마와 가요가 해외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시기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반응이 뜨거웠다. 드라마 인기는 한국 가요로 이어졌다.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신나는 비트와 현란한 안무를 선보인 한국 가수들에게 열광했다. 한국 대중문화의 선전이 거듭되자 1999년 중국 『베이징청년보』는 ‘한국의 유행이 밀려온다.’는 뜻으로 ‘한류’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12.3.21.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2011년에 K-Pop 동영상을 조회한 횟수가 약 23억 회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의 K-Pop 조회 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미국, 타이, 타이완, 베트남 순이었다. 연간 조회 수 1,000만 번 이상을 기록한 국가도 21개에 달했다. 100만 번 이상 조회한 국가 가운데는 아랍 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도 다수 포함됐다. 바하마, 과들루프 등 낯선 이름의 나라도 수두룩했으며, 인터넷 접속 통제 국가인 북한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K-Pop 열풍이 급속도로 퍼진 데에는 누리 소통망(SNS)이 큰 몫을 했다. 현재 국내 주요 기획사는 누리 소통망에 팬 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인기 가수들은 누리 소통망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출처 : 이진석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싸이는 달랐다.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번엔 진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것도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거나 음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올해 서른다섯 살의 유부남, 잘생기지도 않았고 복근도 없는 쌍둥이 아빠가 불과 두 달 만에 ‘월드 스타’가 된 것이다.

아직 미국 음악 평론가들은 싸이를 ‘원 히트 원더(One-hit Wonder·한 곡만 히트시키고 사라진 사람)’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싸이는 이미 빌보드차트 11위에 올라있다. “한 번만 올라도 삼대(三代)가 먹고 산다.”는 빌보드 40위 내에서도 상위권인 것이다. 지금 추세로 보면 1위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싸이가 미국 진출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음악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찍어 유튜브에 올린 것은 모두 ‘한국 팬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말춤을 추며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

싸이의 성공 비결로 여러 가지를 꼽는다. 재미있고 신나는 음악과 춤, 그리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의 힘 등이다. 미국에 가자마자 ‘Dress classy, dance cheesy(옷은 제대로, 춤은 멋대로)’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낸 그의 영어 실력도 한몫 단단히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간과되고 있다.

그것은 싸이가 이전의 ‘한류 가수’들과는 달리, 연예인이기 이전에 자신만의 음악을 개척해 온 뮤지션이라는 점이다. 그는 기획자가 원하는 음악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해왔다. ‘강남스타일’에 가려진 노래 ‘청개구리’에 그런 마음이 잘 담겨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그러다 뭐 될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나 청개구리/ 그 누가 제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야.”

출처 : 『프리미엄조선』, 2012.9.26.

[다] ◆ 한국의 국가별 문화 콘텐츠* 수출 실적 (단위: 천 달러, %)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성장률
일본	32,067	30,675	33,279	52,409	138,639	44.2
중국	1,609	6,427	11,314	15,445	17,099	80.6
홍콩	2,083	5,793	10,967	7,510	9,289	45.3
대만	-	7,003	15,956	14,380	18,912	39.3
총계	35,759	49,898	71,516	89,744	183,939	48.9

* 방송, 영화, 음악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한류열풍의 실체와 기업의 전략적 활용방안』

◆ 한·일 윤사마* 경제 효과

구분	한국	일본
경제 효과	문화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HK 방송 DVD, 서적 판매 350억 원 · 배용준 화보 200억 원 · 배용준 달력 100억 원 · 겨울연가 앨범 1,000억 원 · 위성파 방송 500억 원 · 광고 등 1,500억 원 · 겨울연가 음반 120만 장 돌파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관광 수입 8,400억 원 · 국가 홍보 효과 330억 원 · 한국행 관광객 수 10만 명 증가
	음식 제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츠카 제약 오르나민C 30% 판매 신장 · 두산 소주 수출량 전년 대비 22% 증가 · 윤사마 3종 세트 · 김치 업체 전년 대비 10~20% 증가 · 윤사마 복주머니 세트 등
	기타 제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백화점 : 집객 효과 · 소니, 모델로 배용준 기용 · 다이하츠 공업 · 미라V 주문 10% 증가

* 일본에서 드라마 '겨울연가'의 남자 주인공인 배용준을 높여 부르는 말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 현상과 문화 산업 발전 전략』

◆ 남이섬* 방문 관광객 수

(단위: 명, %)

연도	총계	내국인	외국인	성장률
2000	321,757	321,176	581	-
2001	295,784	294,603	1,181	103.3
2002	682,576	650,077	32,499	2,651.8
2003	859,070	747,300	111,770	243.9
2004	1,400,699	1,133,247	267,452	139.3
2005.6	866,700	753,700	113,000	-

*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

출처 : 춘천시 관광진흥과, 『통계자료』

◆ 글로벌 기업의 한류 스타 기용 사례

- 드라마 ‘겨울연가’의 스타 최지우는 2005년부터 ‘크리스찬 디올’의 첫 번째 아시아 모델로 발탁되어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 중
- 디지털 카메라 업체인 ‘올림푸스’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서 영화배우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활용
- 코카콜라는 드라마 ‘대장금’이 대만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이후 주인공 이영애를 광고 모델로 기용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한류 지속화를 위한 방안』

우리나라의 가수 싸이가 부른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강남 지역의 호텔에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문의가 폭증하는 것은 물론, 강남의 백화점과 면세점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 ‘강남 스타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동 가로수 길에 외국인들의 발길이 몰려 일대 레스토랑과 식음료 매장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심지어 내국인들조차 새삼 강남에 관심이 쏠려 강남 일대 상권에 생기가 돌고 있다.

출처 : 육근록 외, 『고등학교 사회』

KOTRA가 2005년 일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자가 78.9%를 차지했다.

출처 : KOTRA, 『일본 바이어에게 듣는 한류 : 오사카무역관 설문조사』

[라]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반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이 외침을 많이 당하긴 했지만 문화적으로 노예가 된 적은 없다. 중국 방송이 한국 드라마를 찬양한다면 이는 중국을 문화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 배우 장궈리의 말이다. “한국 드라마의 나쁜 점을 찾아 공격하자.” 이는 마오쩌둥 연기로 유명한 배우 탕궈창의 주장이다. 평소 느긋한 중국인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사정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한류에 저항한다고 해 중국의 반한류는 ‘항한류’로 불린다.

일본에선 한류를 미워한다는 뜻의 ‘혐한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만화책 ‘혐한류’에서 유래했다. 일본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한·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극동 아시아 조사회’라는 단체에 가입, 선배의 지도를 받으며 비로소 ‘한심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게 즐거이다. 한국인은 화병이라는 특수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예쁜 한국 여성은 돈이 많아 성형했기 때문이라는 등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봇물을 이룬다.

출처 : 『중앙일보』, 2005.10.20.

『중앙일보』 이어령 고문은 ‘한류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류는 일본·동남아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인의 위상을 단기간에 높였다.”며 “한류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그러나 “한류는 언젠가는 꺼지게 될 것이며 거품이 걷히고 실망이 커질 경우 오히려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06.6.22.